

읽을거리

야마구치 슈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파트너

곽민주님

발제자

이승준님

시간표

[1] 19:40 오프닝 & 독후감 토크	[2] 20:10 북토크
[3] 21:20 쉬는 시간	[4] 21:35 북토크
[5] 23:00 마무리 발언	[6] 23:20 모임 끝!

공지사항

🌸 '별책부록' 모임은 10월 16일(수) 18:30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에서 응답해주신 곡들을 모아 신청곡 플레이리스트를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으로 만들어 모든 멤버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웰컴 드링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들과 알코올이 없는 음료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시즌 3 멤버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는 덕분에 시즌 1, 2 멤버분들 중 1분을 초대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당일 18:00부터 저와 함께 모임을 준비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슬쩍 말씀 부탁드립니다.

🌸 '더 나은 도시생활'을 만드는 에피소드에서 클럽장이 지은 <UX 리서치의 일> 책을 주제로 독서모임을 10월, 평일 저녁에 1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서치 하는데요> 멤버 10명과 에피소드 입주인 5명, 총 15명 정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클럽 멤버 분들은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별책부록' 모임과 동일하게 카카오톡 모임 채널에서 설문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북토크

이 책의 부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을 시작해볼까요? 왜 저자는 이 책의 부제를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라고 지었을까요? '생각 도구'는 UX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함께 읽을 챕터 11가지

- 1.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 프리드리히 니체, 르상티망
- 2.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 칼 구스타프 융, 페르소나
- 10.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 한나 아렌트
- 14. 언제 일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 미하이 칙세트미하이, 몰입
- 24. 안정이 계속될수록 축적되는 리스크 -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반 취약성
- 25. 어떻게 시스템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 카를 마르크스, 소외
- 36. 사람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쓴다 - 장 보르디야르
- 38. '결국 이런 뜻이죠?'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 소크라테스, 무지의 지
- 44.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에드문드 후설, 에포케
- 45. 과학적인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 - 칼 포퍼, 반증 가능성
- 50. 사람은 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 - 안토니오 디마지오, 신체적 표지

북토크

INTRO

책의 시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자의 생각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Why를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과정은 'How'이고 찾아낸 후 공유하는 것들은 'What'이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수많은 철학자가 다양한 사고로 사유하면서 주창한 사상은 아래 2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 What의 물음 =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How의 물음 =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자는 2가지 중 'What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시시한 것이 많고 배움의 종류를 프로세스와 아웃풋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프로세스'에서 배우는 것이 의미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오늘 토론에서 아웃풋 보다는 생각하는 과정, 서로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확장해가며 함께 프로세싱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어떻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느냐에 따라 온전한 나의 삶의 무기이자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BOOK TALK 1

-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의 사례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계의 부분이며, 우주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의 미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적 태도와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정론 '대지는 물이 지지하고 있다'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끈기 있게 사고하고 규명해 나간 태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p.42)
- 한나 아렌트는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라며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밀그램 교수의 '아이히만 실험'에서 많은 사람은 '난 단지 명령 집행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실험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악한 행동을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비인도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의사로 직접 실행하는 감각'의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 전가를 어렵게 하면 악한 행동에 복종률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설계할 때 '아이히만 실험'의 암시를 일방식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자제심과 양심이 사용자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것이 조직의 일 방식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분업'과 '분명한 책임', '환경'이라는 3가지 키워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p.118)
- 니체가 이야기한 '르상티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저자는 르상티망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판단에 자신의 가치판단을 예속 또는 종속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자신의 '진짜' 순수한 욕구인지, 타인에 의해 설계된 르상티망에 의한 것인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경험에 르상티망을 활용하거나 르상티망이 작동하도록 여지를 두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니체의 주장을 덧붙이자면 르상티망을 가진 사람은 르상티망에 기인한 가치판단의 역전을 제시하는 언론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상품은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p.50)
- 책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사용자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크 패턴'과 '기만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크 패턴'으로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무더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만적 패턴'과 '다크 패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북토크

(쉬는 시간 전에 잠시!)

번추위 선정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쉬울 것 같다면 번개로 모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번개는 필수가 아니니, 멤버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자율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두구두구, 이번 달 번개 추진 위원회를 맡을 멤버 1명을 선정해 보세요.

혹시 이번 달 번추위에 지원하실 멤버가 계실까요? 또는 함께 논의하여 멤버 1명을 선정해 보세요.

번개 추진 위원회로 선정된 멤버는 다음 모임 전까지, 오늘 멤버들과 함께 번개를 진행해 보세요. 맛집 투어, 미술관, 각종 액티비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나누고 함께 즐겨요.

BOOK TALK 2

- '반취약성(anti-fragile)'이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을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리서치팀의 조직문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일수록 시스템은 취약해지게 마련이므로 언제나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가해야 한다. 그 실패가 학습을 독려하고 조직의 창조성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론 중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책에 나온 삽화를 공유드릴 테니 칙센트미하이의 삽화를 보면서 함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더 나은 UX'를 달성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p.185)
- 스마트폰은 현대 사회에 페르소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자는 "휴대전화라는 가상의 횡적 연계 매체가, 학교라는 사일로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기를 바라는 아이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일로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57)
- (이어서) 사일로의 개수를 줄이는 쪽과 가상의 횡적 연계 매체로서의 휴대전화로부터 분리하는 것 사이에 어떤 방법이 지속가능할까요? 스트레스가 수치가 높은 사일로에서부터 재빨리 도망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인의 입장(우리)과 우리가 설계하는 서비스의 경험의 대상자(사용자) 입장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까요?
- 델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는 '무지(無知)의 지(知)' 즉 애초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을 수많은 전문가(현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지적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지(無知)는 아는 것이 없다는 지식 없음이라는 뜻과 더불어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의 단계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 표현될 수 있도록 숙달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용자를 만나서 리서치를 하거나, 무언가를 발견하고 패턴을 찾으려면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욕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화해서 발견한 것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자신의 앎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용자 중에서 일부 사용자를, 그때의 상황과 비교적 뚜렷한 목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만날 뿐입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기도 하지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편향에 빠지지 않고 정리하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결국 00이라는 뜻이죠?"라는 다운로드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p.270)

북토크

Closing

반취약성과 관련해서 저자는 "가능한 젊을 때 많은 실패를 맛보는 것, 여러 조직과 커뮤니티를 경험하면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한 장소가 아닌 분리된 여러 장소에 형성하는 것 등의 요건이 중요해진다. (중략) 중요한 것은 조직과 커뮤니티의 존속보다도 그 사람의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의 축적이다. 만약 속해 있던 조직과 커뮤니티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사회 자본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아메바형으로 분산되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언젠가 소멸될 수 있는 <리서치 하는데요>라는 커뮤니티에서 소멸되기 어려운 사회 자본을 함께 만들기 위해 같은 책을 읽고 다르게 생각한 것을 자신의 경험까지 더해 공유했습니다. 변화한다는 사실만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사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목에 힘을 좀 빼고 하나씩 같이 해보며 불안을 거쳐 위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몰입의 영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마음 편하지 않은 걱정이나 불안의 영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마무리 토크

마무리 토크를 통해 오늘 대화를 되돌아 보아요.

- 오늘 모임은 즐거우셨나요?
- 오늘 모임에서 머리가 땡! 했던 순간이 있다면?
- 다음 모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무리 질문카드'를 사용하셔도 되어요!

- '마무리 질문카드'는 파트너 님(또는 진행자) 자리에 놓여있어요!
- '마무리 질문카드'를 한 장 뽑은 다음, 질문에 답해봐요.
- 답변이 끝나면 카드를 섞어서 오른쪽에 앉은 멤버에게 전달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 사진 촬영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임방에 있는 삼각대로 다 함께 오늘을 기억할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